

코트디부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322천 km ²	G D P	340억 달러 ('14)
인구	24.8백만 명 ('14)	1 인 당 GDP	1,370 달러 ('14)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	환율(달러당)	522.7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한반도의 1.4배 규모의 국토와 2,47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리, 부르키나파소(북), 가나(동), 라이베리아, 기니(서)와 국경을 접함.
- 2002년 내전 발발 이래 정국 불안이 지속되었으며 2007년 내전 종식을 선언했으나 201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유혈 충돌이 발생하며 내전이 재개되어 2011년 5월 종식됨.
- 2011년 5월 출범한 Ouattara 정부는 국가개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이며, 정국 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재건을 위하여 2012년 대규모 공적채무 탕감을 받았으며, IMF의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선거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2011년 내전 종식 후 정치 안정이 정부지출 확대, 외국인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성장하였고 주요 산업인 코코아, 커피의 생산 역시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으로 연 7~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도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속과 농산물 수확 증대로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5년에는 연말에 계획된 대선과 2016년 총선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저하되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6.8%를 기록할 전망이다.

□ 높은 경제성장률 불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상승세 유지

- 코트디부아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세파프랑(CFA Franc)*의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수입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적고, 내전 종식 후 농산물 생산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1~2%대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서아프리카 8개국의 공동 통화로 1세파프랑은 655.957유로로 고정돼 있으며, 유로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미 달러화 등 타국 통화에 대해 완만한 평가절하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4년에도 동일한 기조가 이어져 0.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과 세계 식료품 가격안정으로 0.9%의 여전히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 상승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혁, 주류, 담배에 대한 높은 소비세, 통신 분야에 대한 세금 증대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세금 면제와 세금징수기관의 행정력 부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옴.

- 201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이 확대되며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과 공공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제성장률	-4.7	9.5	8.7	7.9	6.8
재정수지 / GDP	-4.3	-3.4	-2.3	-2.7	-3.7
소비자물가상승률	4.9	1.3	2.6	0.3	0.9

자료: EIU,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코트디부아르는 수출용 상품작물(cash crop)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국가로, GDP의 약 27%를 농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3분의 2가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코코아(세계 1위, 세계 총생산의 약 40%)와 커피(세계 9위, 아프리카 3위)의 생산이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작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기후와 작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산업별 GDP 구성(2013년): 서비스업 52.4%, 농업 26.3%, 제조업 21.3%

□ 열악한 전력, 도로 등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과중한 대외채무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 및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도로시설 수준은 전세계 144개국 중 7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전력수급 부문에서는 189개국 가운데 161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

- 코트디부아르는 2천만 명 이상의 인구 및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였으나, 그간 쿠데타와 내전 등의 정세불안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하였음.
 - 코트디부아르는 원유(1억 배럴), 천연가스(283억 m³), 금(3톤), 니켈(4.4억 톤), 망간(35백만 톤), 다이아몬드(연 30만 캐럿 이상 생산), 철광석(15억 톤) 등 매장량은 많지 않으나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며 Ouattara 대통령이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의장으로 임명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경제수도인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역내 경제적 리더십을 다시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코트디부아르는 대서양과 접하는 약 520km의 청정해안과 열대성 기후를 갖춰 연중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구역을 보유하여 종합 관광지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또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유럽 관광객의 방문 수요가 높음.
 - 아비장은 현대식 도시계획, 고층빌딩, 녹지 등의 조화로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며 '아프리카의 작은 파리'로 불림.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 추진

- 2012년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 수 년 간의 내전으로 피폐화된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2020년 신흥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하에 4개년 국가 개발계획(PND 2012-15)을 수립,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PND는 농업(12건), 보건 및 에이즈 퇴치(16건), 도로 인프라(12건), 관광(4건) 등 총 114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협력 프로젝트(PPP)로의 진행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유럽, 미국, 중국 등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다이아몬드, 니켈, 구리, 철광석, 망간 등 자원개발의 일환으로 13개의 광산개발권을 발급하였음.

□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량 증대

- 코트디부아르는 농업 비중이 높으나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 수출용 작물 위주로 경작이 이루어져 식량 자급률이 낮아 정부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쌀 자급률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6년까지 농업 발달에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6년 쌀의 연간 생산량을 190만 톤까지 늘리기로 함. 2013년 1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종자 보급, 비료 지원 및 기술지도 등을 기본 틀로 하는 농업증산 및 유통촉진 프로젝트(PROPACOM)를 개시함.
- 2013년 1월 토지 개간을 통한 농지 확보, 가공시설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쌀 가공 및 유통 전문 기업인 Louis Dreyfus 그룹으로부터 약 6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이 진행 중임.

3. 대외거래

□ 인프라 개발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의 상품작물로 상품 수출이 상품수입을 앞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형 사회 기반시설 투자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와 이전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상품작물의 수출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2.2억 달러 감소한 1.3억 달러(GDP의 0.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5년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폭은 6.1억 달러(GDP의 1.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경 상 수 지	3,128	-322	-350	-131	-616
경 상 수 지 / G D P	13.0	-1.3	-1.1	-0.4	-1.7
상 품 수 지	5,816	3,502	3,898	4,742	4,459
수 출	12,306	11,962	12,874	14,582	14,880
수 입	6,491	8,460	8,976	9,840	10,421
외 환 보 유 액	4,205	3,928	4,243	4,509	-
총 외 채 잔 액	13,043	9,871	10,143	11,714	13,602
총 외 채 잔액 / GDP	54.2	40.0	33.2	32.0	36.4
D . S . R .	29.8	11.7	12.7	6.6	6.6

자료: IMF, EIU 및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Ouattara 정부 출범 후 정치안정 회복세이나 야당과 갈등 지속

- 2011년 5월 Ouattara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동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RDR과 연립여당 일원인 PDCI가 다수당 위치를 확보함. Ouattara 대통령은 2012년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을 다수 기용한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FPI를 포함한 야당은 2011년 총선을 보이콧하고 제도권 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현 정부는 국가 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야당 세력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야당은 내전시 현 정부 인사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비난하며 국제형사 재판소에 수감되어 있는 Gbagbo 前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의 모든 수감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Gbagbo 지지 세력의 무력행동 지속, 세력 확산 가능성은 낮음

- 군과 시민을 상대로 Gbagbo 前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세력의 무력행동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이전 정부 세력들과의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단, 무력행동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세력이 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열악한 생활환경

- 2012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총 187개국 중 171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50.7세에 불과하고,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76명에 이르며 교육 수준도 낮아 성인의 평균 학교 교육 이수기간이 4.3년, 식자율이 57% 수준임.
 - 인구의 약 32.4%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있으며 약 24%가 극빈선(PPP, 1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종교적 갈등 발생 가능성 잠재

- 코트디부아르의 종교는 이슬람교(39%)와 기독교(33%)로 양분되어 있으며, 북부 지역 및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대부분은 이슬람 신자이고 남부 지역은 주로 기독교 신자로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의식이 잠재해 있음.
 - 이러한 지역적, 종교적 분열은 내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인접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와의 갈등도 상존함.

□ 에볼라 관련 위험성 잔재

-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로 아직까지 에볼라 발생 건수는 없으나, 에볼라 발병국과 인접해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잔존해 있음. 국내 에볼라 발생보다 역내 에볼라 발생 건수가 증가할 경우 주변국과의 대외거래 차단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국제관계

□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를 넘어서 실리적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2년 내전 당시 프랑스의 마르쿠시스에서 평화협상을 개최한 바 있음. 프랑스는 아비장과 상페드로의 주요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아비장 제2 컨테이너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프랑스 Bolloré 그룹이 결정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높음.
- Ouattara 대통령은 프랑스 중심의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고 국가개발계획 실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내전으로 미개발된 농업, 광업, 원유·가스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ی 평가됨에 따라,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금융을 제공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주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주변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 2013년 상반기 중 기니만 해적 습격이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해상 치안 불안으로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무역활동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역적 협력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경 분쟁과 효율적인 대응조직 부재로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임.
- Gbagbo 추종자들이 이웃한 가나와 라이베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함에 따라 Ouattara 정부는 가나와 라이베리아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

-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에 따라 2009년 3월 31억 달러, 2012년 6월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에 따라 13억 달러, 파리클럽 공적채무 탕감으로 33억 달러 등 총 77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받음.

- 2012년 프랑스 6.5억 유로, 2013년 미국 2.1억 달러, 영국 5천만 달러, 일본 2.2억 달러의 채무 탕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차적으로 채권국들과 채무탕감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1년 말 76.4%에서 2012년 말 36.4%로 감소하였으며 DSR도 29.8%에서 11.7%로 크게 감소하였음. 2014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2.7%, D.S.R은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의 양허성 차관 지원

- IMF는 내전 종식 후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긴급차관(Rapid Credit Facility*) 1.3억 달러와 확장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2011-14) 7.3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2014년 말 현재 긴급차관 전액과 확장차관 6.2억 달러가 인출됨.

* RCF는 긴급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지급하며, ECF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함.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 (2014년 9월 말 기준)

□ OECD 회원국 ECA의 대 코트디부아르 지원현황(OECD, 2014년 9월 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3,83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 지원잔액 5,050만 달러(연체금액 3,850만 달러)

2. 국제시장평가

□ OECD 7등급 유지, Fitch, Moody's 신규로 등급 부여

- OECD는 2014년 10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코트디부아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2014년 7월 7.5억 달러 상당의 10년 만기 유로본드 발행시 Fitch와 Moody's는 각각 신용등급 B, B1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정치적 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경제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용전망은 Positive로 평가함.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인수불가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1. 7. 23 (북한과는 1985. 1. 19)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 간 2014년 교역규모는 2억 2,645만 달러 규모로 교역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 동(銅)제품, 기타 농산물임.

□ 해외직접투자(2014년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9건, 6천만 달러

<표 3>

한 · 코트디부아르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20,655	141,915	218,83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등
수 입	1,722	2,164	7,615	기호식품, 동제품, 기타 농산물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의 경제적 중심지였으나 오랜 내전으로 성장이 정체되었음. 2011년 5월 내전 종식 후, 정부는 국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복지 등 각 부문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코코아, 커피, 캐슈넛 등 상품작물 수출로 매년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2015년에는 경제 발전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Ouattara 대통령은 2012년 11월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였으며, 연립여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Gbagbo 前대통령을 지지하는 야당 및 무장 세력의 활동이 정치·사회 안정에 위협으로 작용함.
- 2012년 대규모 외채 탕감 이후 GDP 대비 외채잔액 비중과 D.S.R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등 단기간의 외채상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임민교(☎02-6255-5727)

E-mail : ymg@koreaexim.go.kr